

도로 위 근로자들의 안전지킴이 (주)광산전자 경광등

취재 · 사진 | 임동희 기자(ldhree@safety.or.kr)

업계 최고 품질의 경광등, 경고등, 싸인보드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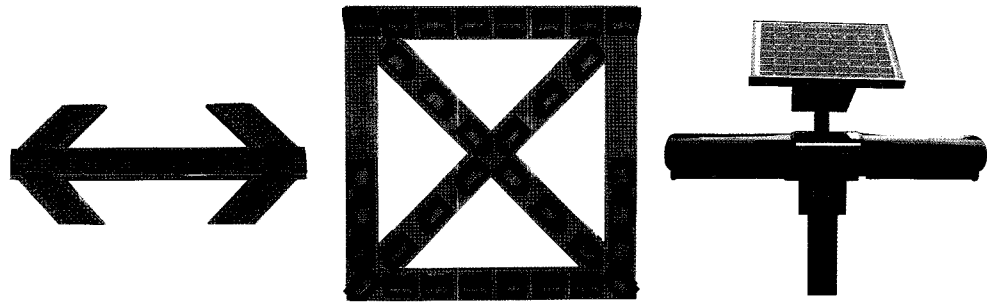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달리는 차들 옆으로 고속도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시속 100KM가 가까운 차들 옆에서 일하는 모습에 보는 사람들조차 아찔한 생각이 들게끔 한다.

실제 이들 근로자들은 다른 어느 업종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282건인 가운데, 이 중 사망사고만 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사자의 치사율은 2009년 기준으로 31.5%에 달하면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평균 11.3%)에 비해 무려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로교통 정비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근로자들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시설 및 장비들이 아닐까 싶다. 위험요인이 큰 실제 작업현장에서 유일하게 취해질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광산전자는 이러한 안전시설 및 용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경광등, 경고등, 싸인보드 등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정보전달기기 및 도로교통 장비업체라는 자부심을 제품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주)광산전자를 찾아가, 이곳 제품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시인성 높고, 방전 및 방수에 강한 제품

도로 안전장비 중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시인성이다. 기후 및 날씨, 즉 혹한, 혹서, 폭풍우 등 여러 환경에 따라 제품의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직접적으로 운전자의 시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이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인성이 높은 가운데, 광원이 최대한 길게 유지되고 방전 및 방수성에 강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경광등'이다.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P.C 재질로 만들어져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COVER와 몸체 접합부분 사이에는 고무로 처리하여 방전 및 방수성도 뛰어나다. 몸체에는 A/L, 동, STAINLESS, 스텐볼트 등을 사용하여 습기에 오랜 기간 견딜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내부 STROBE P.C.B는 일반 패널보다 내구성 및 내열성이 뛰어난 에폭시형 P.C.B를 사용했고, 긴 수명과 높은 조도를 위해 전자부분에 특수 설계를 적용해 제



김 원 도 사장

지난 10여년간 제품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꾸준히 연구 개발해온 결과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활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될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개선해나가는 자세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도로에서 각종 위험 속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했다.

아울러 이곳에서는 다양한 경고등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광원이 운용되도록 기능을 다양화시켰으며, 구조물과 부품을 조립식 구조로 제작하여 어떠한 차량에도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LED, 할로겐 싸인보드'도 이곳의 주력 제품이다. 기본적으로 고휘도 LED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분체 도장으로 부식을 최대한 방지토록 했다. 램프의 속도조절과 콘트롤 박스에서 싸인보드 램프 방향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갖춰놓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해 제작됐다.

제품의 사후관리도 철저

이외에도 이곳에서는 점멸표지판, 우회 및 갈매기표지판, 로보신호수,싸이렌 엠프 등 도로교통 안전에 필수적인 제품들을 다양하게 생산한다. 모든 제품들이 연구, 생산, 검사 등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면서 수요자들의 요구에 최대한 맞게끔 제작됐다.

아울러 이곳에서는 제품 생산 외에 제품들에 대한 사후관리(A/S)에도 철저를 기한다. '출고된 제품들은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곳의 기본적인 신념이다. 이러한 '서비스 정신'도 이곳을 교통장비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우뚝설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

